

01 교회소식

눈물이 기쁨이 되기까지

문서선교 30주년 및 부활절을 기념한 이재록 목사의 영성 시 '눈물'이 발간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다.

02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마음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의 십리를 온전히 이루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오직 순종과 희생, 그리고 감사뿐이었다.

03 기획특집

내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우쳐 마음에 깊이 새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사랑을 확신하며 오직 감사할 수 있다.

04 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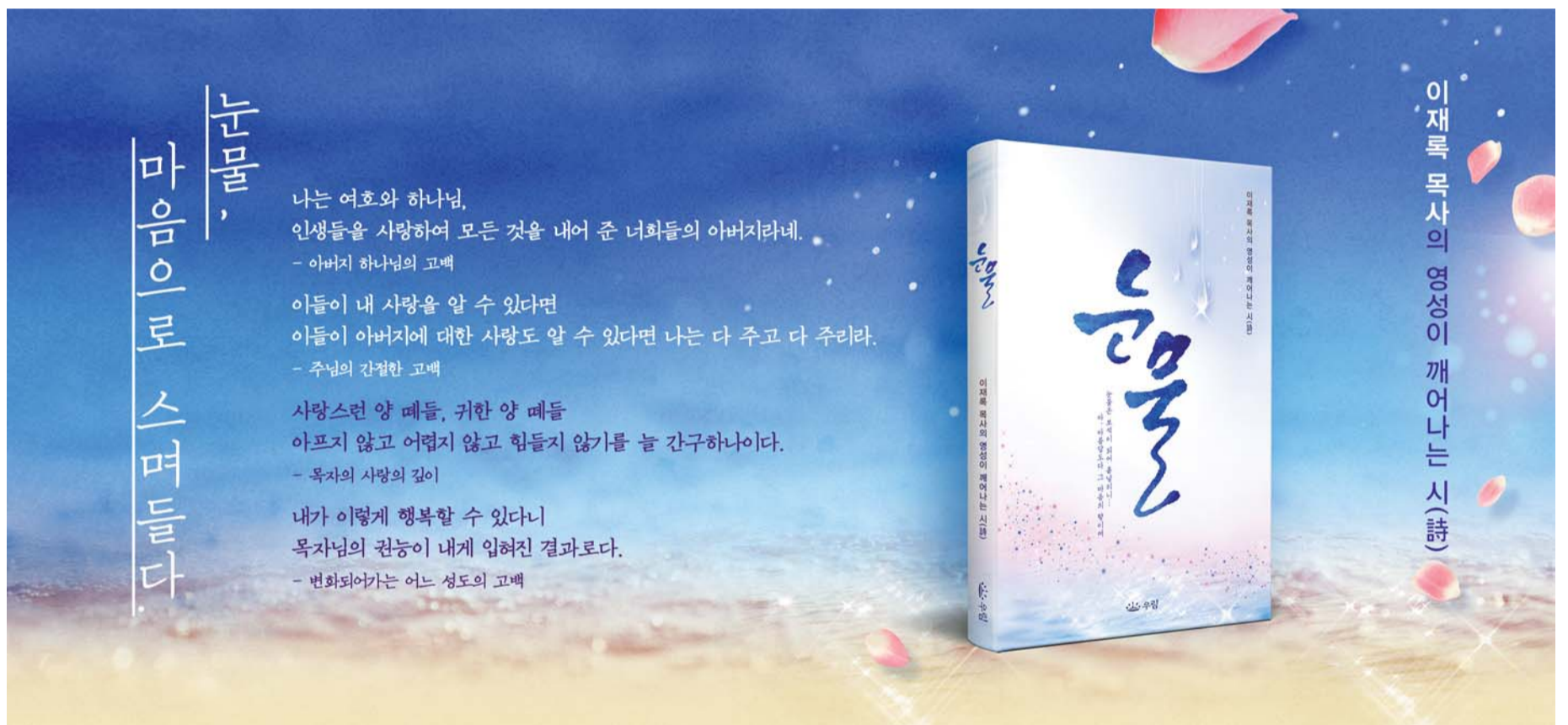
“삶의 이유 되신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영광 돌리길 소망하는 유정우 집사와 이재록 목사의 설교로 삶의 이유를 찾은 태국 핼뜨라 자매 간증.

만민뉴스

제783호 2017년 4월 9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활발한 문서선교 30주년 및 부활절 기념 이재록 목사 108번째 저서 『눈물』 발간



지난 1987년 4월 17일, 이재록 목사의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맞으며』 발간을 시작으로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도』, 『천국』, 『지옥』 등 100여 권의 신앙서적을 61개 언어 427종으로 번역, 발간해 전 세계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왔다.

세계적인 부흥강사 이재록 목사는 7년간 병든 몸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후 권능의 종이 되고자 밥 먹듯이 금식하고 기도했다. 간절한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담아 놓으신 무궁무진한 마음과 깊고도 오묘한 섭리를 알려 주셨다. 또한 밝은 영감 가운데 하나님과 선지자들, 주님과 제자들의 마음과 사랑을 알려 주셔서 『고백』 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

간증수기 발간 이후 책자를 통한 문서선교 30주년 및 다가오는 부활절을 기념하여 이재록 목사는 오랜 세월 인간 경작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눈물, 그리고 목자의 눈물의 의미를 깨달아 변화된 성도들의 고백을 담아 『눈물』이라는 책자를 발간한다.

1부 '눈물이 기쁨이 되기까지'에서는 인간 경작을 결심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와 그 과정에서 겪으셔야 했던 눈물의 고백, 하늘의 천사장들과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이룬 선지자들의 고백이 담겨 있다.

무수한 아픔을 겪으시면서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으려는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 결과 구약시대에 에녹, 아브라함,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와 같이 선하고 아름다운 참 자녀를 얻게 되었다.

2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에서는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영혼에 대한 사랑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아들로써 아버지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는 애뜻한 사랑의 고백, 피로 물든 십자가상에서도 이 땅에 남겨질 영혼들을 생각하시는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심히 그리워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눈물겨운 고백도 생생한 감동을 선사한다.

3부 '눈물은 보석이 되어 흠날리니'에서는 양 떼를 책임지는 목자로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지옥으로 가는 수많은 영혼을 어찌하든 살리고 싶은 애절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눈물의 고백 속에 녹아 흘러 감동의 절정을 이룬다.

4부 '눈물은 영광의 열매'에서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에 없던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세위 주신 목자를 통해 구원의 기회는 물론,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침노하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보석처럼 빛나는 영혼들로 나오기까지 사랑으로 헌신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성도들의 감사의 고백이 아름답다.

이 책자에 수록된 140편의 눈물어린 고백은 독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어디선가 맑고 청아한 음성이 들려오는 듯 성령의 감동함으로 가득 채워줄 것이다.

지난 3월 29일부터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에서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눈물』 책자는 하루 만에 인터넷 종교부문 일간 베스트셀러 1위, 2일째에는 인터넷 주간과 일간 모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다. 4월 17일부터는 교보문고를 비롯 전국 시중서점에서 판매하며 인터넷서점에서 전자책 구입도 가능하다.



이재록 목사의 영성이 깨어나는 시(詩) 100편
고백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영혼들을 향한 가슴 적시는 사랑과 눈물의 고백



당회장 이재록 목사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53:4~9)

부활절을 앞둔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골 2:6~8)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합니다.

1.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중한 죄를 지은 죄인에게 내려지는 사형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힌 채,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아야 하지요.

체중으로 인해 못 박힌 손목은 찢어지고, 피 냄새를 맡은 벌레들이 날아와 몸에 달라붙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십자가 처형을 받기 전에도 갈고리가 달린 채 짝에 많이 맞고 머리에 날카로운 가시면 류관을 쓰셔서 온몸이 피투성이였지요.

그런데 몸으로 느끼는 것보다 더한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이는 죄악에 심히 물든 인생들로 인한 아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이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멸망의 길로 가는 어

리석은 인생들에 대한 고통이었습니다.

온전한 순종이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멘”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했고,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했지요.

약 2천 년 전,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아무 죄없이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무수한 영혼이 구원에 이를 것을 믿으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시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어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기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주간을 맞아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참혹한 십자가를 지라는 것도 아니고, 내 영혼이 잘되어 축복을 받으라고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닦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빌 2:5).

2. 주님의 마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의 마음입니다

희생의 마음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가 약속되지 않아도 묵묵히 내 것을 다 내어주고 또 내어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할 때 육적으로는 자신을 희생해야 할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

주님의 마음

어 누가복음 6장 30절에 “무릇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말씀한 대로 순종하려면 때로는 물질과 시간을 상대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손해가 되니 주지 못하고, 결국 순종이 안 되지요. 이럴 때 묵묵히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며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죄인들을 위한 희생양으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에도 어떤 원망이나 불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피조물들로부터 왜 멸시와 조롱을 받아야 하는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선한 일만 한 나를 어찌하여 애매히 핍박하는가?’ 이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으셨지요. 누구 하나 깨닫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으로 인해 전혀 서운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죄 중에 고통받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묵묵히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본문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한 대로이지요. 그런데 혹여 여러분은 어떤 일이 내 뜻대로 안될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았는지요?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했지만, 아무도 내 수고와 애씀을 알아주지 않을 때 서운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희생의 마음은 아무런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도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만일 자신은 희생하는데 남들은 희생하지 않을 때 ‘왜 꼭 나만 희생해야 하는가?’ 하며 불평을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입니다. 곤욕을 당해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의 마음이 큰 은혜와 감동으로 와 닿으시기 바랍니다.

3. 주님의 마음은 열매를 바라봄으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후에도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요 19:33~34)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감사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 하나의 희생으로 무수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도 많이 얻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히려 자신이 그 일을 이룰 수 있음도 감사하는 마음이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희생을 통해 이뤄질 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생기면 억지로 힘들게 희생하는 것이 아니요, 즐거움으로 희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순종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장차 맺힐 열매를 바라봄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하게 느껴져도, 때론 기도가 버겁게 느껴진다 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더 좋은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닦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감사하고, 영혼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가게 하심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신 주님의 마음, 곧 순종과 희생과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도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보답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경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아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아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아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아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아예배 [아동부]	3:00 PM
다. 월요일 기도회 9:00 PM (매일/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는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우쳐 마음에 새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을 확신하며 오직 감사할 수 있다.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께서 범사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인정하면 선하신 뜻 가운데 그의 길을 지도하신다(잠 3:6). 그렇다면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사랑은 무엇일까?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죄와 불법에 빠져 사망으로 가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므로 독생자까지 내어 주셨다.

요한일서 4장 9~10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말씀하신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롬 5:8).

곧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 주셨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의해 처참한 수

모를 당하실 때 차마 이 모습을 보실 수 없어 외면하시고 많은 눈물을 흘리셨다. 십자가 처형의 순간에는 그 아픔이 너무 커서 하늘의 해조차 빛을 잃고 땅에는 지진이 일어나 진동하고 바위가 터질 정도였다. 이런 슬픔을 참고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 주신 것이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마음 깊이 새겨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가 되고자 힘써야 한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해도, 만일 예수님께서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세상 죄를 지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 모든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다.

피조물인 사람들이 침 뱉고 조롱하며 채찍질해 결국은 별거벗겨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께서 당장에 그들을 멸하실 수 있었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천군

을 보내 진멸하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인간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당하셨다.

뿐만 아니라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심으로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사람의 본분을 되찾아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전 3:18, 12:13~14). 또한 가난한 길을 가심으로 우리의 가난을 대속해 주시고 부요케 하셨다(고후 8:9).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빌 2:6)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찢리고 상하셨으며,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고 모든 질병에서 해방시키려고 징계를 받으시며 채찍에 맞아 피 흘려주셨다(사 53:5, 6 ; 마 8:17 ; 벰전 2:24).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사람의 생각에서 오는 죄를 대속하시고 천국의 좋은 면류관을 얻게 하셨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무 죄없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영혼들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피 묻은 얼굴과 사랑의 눈빛을 항상 마음에 담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나를 위해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신 사랑”

구원의 은혜도 감사한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런 천국의 처소까지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기에 참으로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믿고 진리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그 행함대로 천국의 처소와 상급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사해 주셨지만 그 피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요일 1:7). 하나님 말씀을 배움과 동시에 순종함으로 마음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곧 마음 안에 있는 미움, 교만, 험기 등을 빼내고 그 자리에 진리인 사랑, 겸손, 온유함 등을 채워야 한다.

이처럼 주님을 영접해 마음의 악을 버리고 선과 사랑으로 채우는 행함이 있어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약 2:17, 26). 또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진리 안에 살아야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요삼 1:2).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씀하신 대로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진리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천국 처소를 친히 예비하시며 영원한 천국에서 사랑을 주고받을

날을 하루하루 고대하며 기다리고 계신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세상을 바라보지 않음은 물론, 천국의 영광을 믿기에 세상에 대한 욕심도, 미련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장차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며 그 사랑을 영원히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4

*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7.4.9~4.15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주님의 사랑 ■ 하나님의 선
- 성령의 97가지 열매 9 ■ 1차 영혼육 1-6
- 위로부터 난 지혜 5-9 ■ 천국 30-35
- 공부 잘하는 비결 1-5
- 요한계시록 강해 52-59
-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 1-3

GCN TV설교

- 네 믿음대로 될찌어다 (이수진 목사)
- 선 (이미영 목사)
- 목자님의 열매 1 (이희선 목사)
- 읊기 강해 30 (신동초 목사)
- 마라의 쓴물 (정구영 목사)
- 진정한 축복 (김수정 목사)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보기] 4
- 권능 스페셜 11 ■ 마지막 때 10
- 창조와 과학 7 ■ English 5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75
- 내 마음의 찬양 4
- 모두 드려요 31

해외성회 프로그램

- 회상 1
- 뉴욕 연합대성회 3
- 믿음으로 걸어온 길 5

전국 어디서나 **allehTV** 세계 어디서나 **RokuTV**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니 너무 행복해요”



핀뜨라 세이 자매
(20세, 태국 치앙라이만민교회)

저는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를 즐겨했지만 제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 존재하는지, 과연 이 세상에는 참된 사랑이 있는지 늘 의문이었지요. 2016년 4월, 아라차몬 집사님의 전도로 치앙라이만민교회에 가서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되니 제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교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GCN방송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비로소 제 삶의 이유를 찾게 되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졌습니다. 온전한 주일성수를 하고 매일 다니엘 철야에 참석해 방언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니 기도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8월에는 고질병이던 위장병을 치료받고 9월에는 두통마저 사라졌지요. 이제는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합니다. 더욱이 불같이 기도하면서 자기중심적이고 쉽게 오해하고 판단 정죄하는 제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 깨달으며 버려질 수 있었지요. 또한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전도되어 함께 신앙생활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목자를 만나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참 행복을 얻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주님께,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당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태국 영혼들을 위한 이재원 담임목사님과 가족의 헌신에도 감사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원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조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안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